

# 대한항공 '왕조 시대'



# 현대건설 '통합 우승'

6개월 대장정 마무리



2일 경기도 안산상록수체육관에서 열린 프로배구 V리그 남자부 챔피언결정전 3차전 OK금융그룹 웃맨과 대한항공 점보스의 경기. 이날 경기에서 세트 점수 3-2로 승리하며 챔피언 자리에 오른 대한항공 선수들이 트로피와 함께 기념 촬영하고 있다.



1일 인천 삼산월드체육관에서 열린 프로배구 V리그 여자부 챔피언결정전 3차전 흥국생명 핑크스파이더스와 현대건설 힐스테이트의 경기에서 승리해 챔피언에 오른 현대건설 선수들이 트로피와 함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남자부 대한항공, V리그 최초 4년 연속 통합우승 '새 역사' 여자부 현대건설, 8년 만에 챔피언결정전 1~3차 3-2 승 기록

6개월의 대장정을 마치고 가장 활짝 웃은 팀은 남자부 대한항공과 여자부 현대건설이었다.

대한항공은 프로배구 도드람 2023-2024시즌 마지막 경기인 열린 2일 안산 상록수체육관에서 '챔피언 세리머니'를 펼쳤다.

하루 전인 1일에는 현대건설이 우승 트로피를 번쩍 들었다.

대한항공은 OK금융그룹과의 5년 3승제 챔피언결정전을 세 경기만에 끝내고, V리그 첫 4년 연속 통합우승(정규리그 1위·챔피언결정전 우승)의 대

업을 이뤘다.

2011-2012시즌부터 2013-2014시즌까지 세 시즌 연속 통합우승을 차지한 '초대 왕조' 삼성화재의 연속 통합우승 기록을 넘어선 '새 역사'를 썼다.

현대건설도 흥국생명과의 1~3차전에서 모두 세트 스코어 3-2로 승리하는 챔피언결정전 최고 기록을 작성하며 통합우승을 일궜다.

현대건설은 2015-2016시즌 이후 8년 만에 우승 트로피를 들었고, 2010-2011시즌 이후 13년 만의 통합우승에 성공했다.

챔피언결정전은 '초단기전'으로 끝났지만, 팀당 36경기를 벌인 정규리그는 종료 하루 전야 1위 팀이 가려지는 안갯속 승부가 펼쳐졌다.

3월 15일에 먼저 정규리그 일정을 마친 대한항공(승점 71·23승 13패)은 우리카드(승점 70·23승 13패)가 하루 뒤 정규리그 마지막 경기에서 패하면 서 승점 1 차로 정규리그 1위를 차지했다.

현재와 같은 승점제로 정규리그 순위를 가린 2011-2012시즌 이후 남자부 1, 2위의 격차가 1점에 불과한 건 이번 시즌이 처음이었다.

행운이 따르면서 대한항공은 구단 통산 7번째로 정규리그 1위에 올라 삼성화재와 함께 남자부 최다 1위 구단이 됐다.

현대건설(승점 80·26승 10패)도 정규리그 내내 흥국생명(승점 79·28승 8패)과 치열한 선두 다툼

을 펼친 끝에 승점 1차로 정규리그 1위에 올랐다.

2019-2020, 2021-2022시즌에 정규리그 1위를 차지하고도 코로나19 여파로 포스트시즌이 열리지 않아 '우승팀 타이틀'을 달지 못했던 현대건설은 이번에는 챔피언결정전에서도 승리하며 우승 횟수를 의미하는 세 번째 별을 달았다.

정규리그 마지막 경기에서 패해 챔피언결정전 직행 티켓을 놓치고 플레이오프에서 OK금융그룹에 덜미를 잡혔지만, '리빙딩 시즌'에 정규리그 2위에 오른 우리카드도 시즌 내내 화제를 모았다.

후반기에 맹활하게 승점을 추가해 2016-2017시즌 이후 7년 만에 포스트시즌 무대에 오른 여자부 3위 정관장도 이번 시즌을 빛낸 주역이었다.

치열한 승부가 이어지면서 배구장을 찾은 관중도 늘었다.

이번 시즌 정규리그와 포스트시즌 총 264경기에서 58만6514명의 관중이 배구장을 찾았다. 경기당 평균 관중은 2222명이다. 2022-2023시즌 266경기 56만 845명, 경기당 평균 2108명보다 늘어난 수치다.

V리그 최고의 '티켓 파워'를 과시한 선수는 단연 김연경(흥국생명)이었다.

김연경의 인기 덕에 흥국생명은 홈 경기에 V리그 전체 평균 관중의 두 배에 가까운 관중 4263명을 끌어들이었다. 2023-2024시즌 최다 관중 1~10위는 모두 흥국생명 홈 경기였다.

올 시즌 도입한 아시아쿼터는 경기력 향상은 물론이고, 관중 동원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태국, 인도네시아 팬들이 배구장을 찾아 응원하는 모습은 이제 V리그에서 익숙한 장면이 됐다.

/연합뉴스

## '팀킬 논란' 박지원·황대헌, 쇼트트랙 국대 선발전서 다시 만난다

5~7일 1차·11~12일 2차 선발전

황대헌(24·강원도청)에게 연이어 반칙을 당해 태극마크를 놓친 쇼트트랙 '세계 챔피언' 박지원(27·서울시청)이 다시 한번 대표팀 승선에 도전한다.

박지원은 5일부터 7일까지, 11일부터 12일까지 서울 목동아이스링크에서 열리는 2024-2025시즌 쇼트트랙 국가대표 1, 2차 선발전에 출전한다.

이번 대회는 박지원의 선수 인생이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박지원은 그동안 지독한 불운에 시달리며 동계 아시안게임과 올림픽 시즌마다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낙마해 병역 혜택을 받지 못했다.

그는 내년 2월 중국 하얼빈에서 열리는 동계 아시안게임을 통해 병역 혜택을 노리는데, 만약 국가대표로 선발되지 못하면 복무 문제로 2026 밀라노-코르티나파초 동계올림픽 출전이 불투명해진다.

당초 박지원은 새 시즌 국가대표로 선발될 기회가 있었다.

그는 2022-2023시즌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월드컵 시리즈에서 세계 1위에 올랐고 2023-2024시즌에도 정상을 지켰다.

박지원은 지난달 네덜란드 로테르담에서 열린 2024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쇼트트랙 세계선



2024 국제빙상연맹(ISU) 쇼트트랙 세계선수권대회에 출전한 황대헌(강원도청, 오른쪽)과 박지원(서울시청)이 지난 19일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을 통해 입국한 후 인터뷰를 기다리고 있다.

수권대회를 통해 새 시즌 대표팀 자동 승선을 노렸으나 황대헌에게 연달아 반칙을 당해 뜻을 이루지 못했다. 남자 1500m 결승에서 황대헌의 반칙으로 메달 획득에 실패했고, 남자 1000m 결승에서도 황대헌의 반칙으로 완주하지 못했다.

결국 박지원은 세계랭킹 1위를 차지하고도 태극마크 경쟁을 원점에서 시작하게 됐다.

박지원의 국가대표 선발 여부는 장담하기 어렵다. 그는 세계선수권대회 때 황대헌의 반칙으로 펜스에 심하게 충돌하면서 목 부위와 왼팔을 다쳤다. 이번 대회의 최대 경쟁자는 자신에게 타격을 가

한 황대헌이다.

황대헌은 최근 대한빙상경기연맹이 총출에 고의성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국가대표 선발전에 출전할 수 있게 됐다.

박지원이 아시안게임에 출전하기 위해선 상위 3위 안에 들어야 한다.

선수들은 500m와 1000m, 1500m 등 3개 종목 성적을 합산해 1차 대회에서 상위 24위 안에 들면 2차 대회에 진출한다. 2차 대회 성적까지 남자부 상위 8명이 태극마크를 다는데, 국제대회 개인전 우선 출전권은 3명에게만 주어진다. /연합뉴스

## 스포츠중재재판소 "IOC, 국제복싱협회 퇴출은 정당"

IBA, 편파 판정·승부조작 등 문제 IOC가 파리올림픽 때 복싱 운영

스포츠중재재판소(CAS)가 국제 스포츠 경기 단체의 지위를 상실한 국제복싱협회(IBA)의 퇴출을 확정했다.

로이터 통신 등 외신은 3일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국제기구 승인 철회 결정에 반발해 IBA가 제기한 항소를 CAS가 기각했다고 전했다.

스포츠계 분쟁을 조정하는 최고 기구인 CAS의 판결에 따라 1946년 설립된 IBA는 78년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다.

IOC는 지배구조, 재정, 윤리 등 여러 항목에서 개혁에 실패한 IBA를 지난해 6월 임시 총회에서 퇴출했다.

IBA는 2016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당시 심판 편파 판정 논란을 야기하고 재정난과 승부조작 등 총체적인 부실을 드러냈다.

게다가 2020년 러시아 출신 우마르 크렘레프가

새 회장으로 오르면서 IBA와 IOC의 관계는 더욱 악화됐다. 크렘레프 회장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IOC의 주도로 러시아와 벨라루스 선수의 국제대회 출전을 금지한 국제 스포츠계의 징계를 뒤집고 두 나라 선수의 복싱 대회 출전과 경기 계약 등을 허용했다.

CAS는 "IOC가 오랜 기간 IBA에 여러 개혁 조치를 요구했으나 IBA가 재정 투명성과 운영 지속성의 확대, 심판 편파 판정 문제 개선 등 IOC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이런 측면에서 IOC의 퇴출 결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명시했다.

IBA를 대신할 단체로 출범한 세계복싱(World Boxing)은 지난달 IOC의 국제기구 승인을 받아 2028 로스앤젤레스 하계올림픽에서 복싱이 정식 종목으로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IOC는 IBA를 대신해 2020 도쿄 올림픽에 이어 2024 파리 올림픽에서도 복싱 종목을 운영한다.

/연합뉴스

광주일보 72년 호남 최대 부수·열독률 1위

LOTTE CINEMA | 증장로관, 광주예술의전당, 문화산책, 광주상설공연